

전설의 주역 두 인물



△ 낭야대(琅琊臺) 정전(正殿) 앞에서 있는 진시황(秦始皇) 동상



▷ 서북의 고향으로 알려진 강소성 감유현(江蘇省 贛榆縣) 광장에 서 있는 서북(徐福) 석상

베이징 서북국제학술 심포지움

- ▷ 중국서북회(中國徐福會·會長 李連慶)가 주최한 서북국제학술심포지움(徐福國際研討會)이 2002년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베이징(北京) 징타이호텔(金台飯店)에서 개최되었다. 이 학술회의에는 한국·중국·일본의 학자 2백여명이 참석했다.



- ▷ 회의식상에서 제주도의 서북전설과 유적에 관하여 설명하고 있는 필자



- ▷ 회의에 참석한 여러나라 학자들. 이 회의에는 중국과 일본의 여러 지역을 대표하는 학자들이 참석했고 한국에서는 양중혜 제주도문화원장과 필자가 참석했다.





◁ 서북국제학술회의는 5일 동안 베이징 징타이(金台) 호텔에서 열려 각국 대표들의 주제발표가 있었다.



◁ 6월 24일 회의에서는 하다 츠토무(羽田孜) 전 일본수상도 참석 그의 가계에 얹힌 전설을 발표했다.(가운데)



◁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만찬에서 건배제의하는 필자(아래)

중국 베이징 국제학술심포지움을 마치고 각국 대표들과



△ 2002년 6월 24일 중국베이징 국제서북학술심포지움을 마치고 각국 대표들과 기념촬영. 징타이(金台)호텔 현관 앞에서



△ 앞줄 왼쪽에서 다섯 번째가 하다(羽田孜) 전 일본수상, 여섯 번째 이연경(李連慶) 중국서북회장, 일곱 번째 필자, 열 번째 양중해(梁重海) 원장



▷ 중국 베이징 조어대(釣魚台)에서. 왼쪽부터 양중해(梁重海) 제주문화원장, 장미영(張美榮) 중국서북회 비서장, 이연경(李連慶) 중국서북회장, 필자.

남야대 서복상제막식에 참석하고



△ 산둥성 교남시(山東省 膠南市) 남야대에 서복조상(徐福彫像)이 건립되고 2002년 6월 22일 제막식이 거행되었다. 필자도 이 자리에 참석 축하를 했다.

◁ 제막을 본 서복조상 앞에서 기념촬영. 중앙이 필자



◁ 제막식이 끝난 뒤 남야대 진시황군조상(秦始皇群彫像) 앞에서 중국 방송기자와 인터뷰하는 필자

서복문화 축제



△ 서막제 행사



제4회 서복고리(徐福故里) 문화절(文化節)
행사가 2002년 4월 18일 산둥성 용구시(山東省 龍口市)에서 열렸다.

◁ 어린이무용



△ 사자춤

이날 기포도(岬岬 > 嶋) 서북공원에서 축하행사가 이어졌다.



◁ 문화절 행사를 마치고 서북전시관 앞에서 왼쪽에서 세 번째 김형탁(金亨卓)서귀포시 서북문화교류회장, 다섯 번째 필자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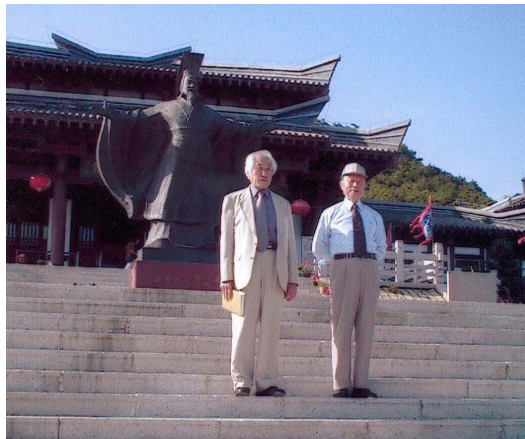
△ 서북 동도 2220주년 기념 학술심포지움이 2002년 4월 10일 용구시(龍口市)에서 개최되었다.



◁ 낭야대 서복조상 앞에서. 왼쪽부터 중국서북회 장미영(張美榮) 비서장, 이연경(李連慶) 회장, 필자, 양중해(梁重海) 제주문화원장



△ 낭야대 각석(琅琊臺 刻石) 앞에서 필자



△ 낭야대 진시황동상 앞에서 양중해원장과 필자



△ 1995년 10월 23일 하북성 진황도시(河北省秦皇島市)에서도 서북축제가 베풀어졌다.

▷ 1994년 10월 20일 베이징시(北京市) 오주대 주점(五洲大酒店)에서 열린 서북국제학술세미나(徐福國際學術研討會)에 참석하고

▽ 1994년 10월 19일 베이징시(北京市)에서 열린 서북국제학술세미나(徐福國際學術研討會)에 참석하고 천안문(天安門) 앞 광장에서





△ 일본서북기념사업회(日本徐福記念事業會 會長 茂在寅男)의 초청을 받고 2003년 3월 25일 도오쿄 예비수(東京 恵比壽) 아드레홀에서 특강하는 필자



◁ 고 이이노 다카히로(飯野孝有) 전 일본서북학회 회장의 묘소를 참배하고 미망인 이이노 요시코(飯野良子) 일본 서북회 이사장과 함께



△ 특강을 마치고 일본의 서북학자들과



△ 서북의 전승묘가 있는 신구시(新宮市) 시장을 방문하고.
 왼쪽부터 오쿠노(奥野利雄) 일본서북회 부회장(日本徐福會 副會長), 김수옥(金秀玉) 한라일보 오사카 지사장(漢拏日報 大阪支社長), 필자, 다사카(田坂匡玄) 신구시장(新宮市長)



◁ 규슈사가현(九州佐賀縣) 긴류신사(金立神社) 경내에 있는 수령 2천년으로 전해지고 있는 백진(柏楨)나무 앞에서
 사가서북회 요시쓰크 도시다카(吉次敏孝)부회장과 필자.

▷ 일본 규슈 사가현 긴류공원(金立公園)에 있는 서북장수관(徐福長壽館)을 방문한 필자.
 왼쪽부터 모리 준이치로(森醇一期) 나고야성 박물관장, 오오노 다카오(大野恭男) 관장, 모리타 다카시(森田孝志) 나고야성박물관 학예사



중국 서북회 한국방문단 내도



△ 이연경 중국서북회장(李連慶中國徐福會長)을 단장으로 한 중국서북회 한국제주방문단 일행이 2001년 6월 제주도를 찾아왔다. 일행을 맞은 제주서북학회는 6월 12일 오후 6시 제주 KAL호텔에서 만찬을 겸한 환영회를 베풀고 두 나라의 친선과 학술교류를 다짐했다.



△ 홍순만(洪淳晩) 제주서북학회장의 인사말



△ 이연경(李連慶) 중국서북회 회장의 답사



△ 중국서북회 한국제주방문단 환영만찬



△ 서귀포시 중문관광단지(西歸浦市 中文觀光團地)를 시찰하는 중국서북회원들. 사진은 테디베어 박물관에서



△ 서귀포시(西歸浦市)를 방문한 중국서북회(中國徐福會) 회원들을 위해서 강상주(姜相周) 시장은 오찬을 베풀고 환영했다.

일본 서북회 제주도 방문



△ 1992년 11월 일본서북회(日本徐福會) 이와야 다이시(巖谷大四)회장, 이이노 다카히로(飯野孝宥) 이사장 등 중진회원 15명이 제주도를 방문했다. 제주서북학회는 이들 일행을 맞아 11월 11일 밤 제주그랜드호텔에서 환영간담회를 개최하고 친선을 돈독히 했다.

▷ 일본서북회 이이노 다카히로 이사장의 인사



△ 제주서북학회 김봉옥(金奉玉)회장과 일본서북회 이와야(巖谷大四)회장은 서로 선물을 주고 받았다.



△ 서북유적지로 알려진 서귀포시 정방폭포(正房瀑布)를 찾은 일행이 필자의 설명을 듣고 있다.



△ 일본서북회 일행의 방도를 계기로 한라일보사(漢拏日報社)에서는 서북집단의 제주도래설을 주제로 좌담회를 개최했다.

일본 사가 서북회 제주도답사단 내도



△ 일본 사가서북회(日本佐賀徐福會) 기노시타 기이치로오(木下祺一郎)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서북유적 답사단 일행 17명이 1991년 8월 제주도를 찾아왔다.
서불(徐市)의 전설이 흐르고 있는 한라산 영실(靈室)을 찾은 일행



△ 서북이 「서불과지(徐市過之)」라는 각자를 남기고 떠났다는 서귀포시 정방폭포(西歸浦市 正房瀑布)에서 현장설명을 듣고 있는 회원들.



△ 서복(徐福)의 전승유적지 서귀포시(西歸浦市)를 방문한 사가서복회(佐賀徐福會) 회원들.



△ 강창수 서귀포시장(康昌洙 西歸浦市長)이 배운 환영오찬

일본 도오쿄서복연구회 답사단 내도



△ 일본 도오쿄서복연구회(東京徐福研究會) 모자이 도라오(茂在寅男) 회장을 단장으로 하는 제주서복유적답사단 25명이 1993년 11월 제주도를 방문했다. 이 답사단에는 에사카 테루야(江坂輝彌) 교수 등 저명한 학자들이 다수 참가했다.
사진은 성산일출봉(城山日出峰) 앞에서



△ 김인규(金仁圭) 서귀포시장(西歸浦市長)이 초대 한 오찬



△ 서북의 전승지로 알려진 서귀포시(西歸浦市) 유적을 답사하고 나서
앞줄 왼쪽부터 다카미(高見玄一郎)부회장, 필자, 모자이(茂在寅男) 회장, 김인규(金仁圭) 서귀포
시장, 에사카(江坂輝彌) 교수, 김인규(金仁圭) 제주서북학회 부회장



△ 1997년 11월 일본서북회(日本徐福會) 답사반이 재차 내도하였다. 사진은 삼성혈(三姓穴)을 시찰하고
왼쪽부터 이케가미(池上正治), 도리이(島居貞義), 이시쿠라(石原昭重), 필자, 고태준(高泰俊), 이시카와
(石川幸子) 제씨.



△ 서복(徐福)의 전설이 흐르고 있는 정방폭포(正房瀑布). 지금은 많은 관광객이 찾아드는 명소로 변하고 있다.



△ 제주시(濟州市) 앞바다에서 바라본 제주도, 한라산(漢拏山)에 구름이 일고 있다.